

## 100년 기술 집약된 ‘K-HAS’ , 온라인 교육 성료

- 공사 보유 전문기술 전수로 민·관 상생협력 도모 -

한국농어촌공사는 민간과 학계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공사의 수리수문설계시스템(K-HAS)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민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3일 전했다.

수리수문설계시스템(K-HAS)\*은 수리시설 설계에 필요한 수문량 분석 및 수리해석이 가능하도록 공사가 축적한 100여 년의 기술을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2016년부터 설계시스템을 민간에 무료로 제공해 농업 분야 수리수문에 대한 누적 기술이 충분하지 않은 민간의 기술력 증진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 K-HAS(KRC Hydraulics & Hydrology Analysis System): 한국농어촌공사 수리수문설계시스템

\* 프로그램의 분야별 활용 기능

- 치수(호우 대비): 치수계획 수립을 위한 홍수량 산정, 저수지 안정성 분석 등
- 이수(용수 확보): 관개계획 수립을 위한 유입량, 필요 수량 산정, 물 수지 분석 등
- 수리(침수 분석): 배수개선 사업지구 내 시설물 규모 검토 등

이와 함께, 프로그램 민간 무료 개방 이후 현재까지 매년 약 500여 개의 민간 기업과 학술단체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꾸준한 이용자 수 증가로 공사에서는 외부 사용자들의 올바른 프로그램 사용법 숙지 및 이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치수 분야에 대해 사례 중심의 실습형 강의를 통해 외부 사용자의 실무적인 접근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원거리 사용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예창완 기반계획처장은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기술 발전과 민간기업의 기술적 성장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공사의 기술력을 민간에 적극 공유하여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기반계획처   | 책임자 | 부 장 | 이주형 (061-338-5711) |
|       | 기후정책추진단 | 담당자 | 과 장 | 이윤표 (061-338-5718) |